삼성전자, 청년 소프트웨어 인력 1만명 키운다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설립

삼성전자는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를 통해 IT 생태계 저변을 확대하고 청년 취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를 설립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8일 발표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방안'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삼성전자는 소프트웨어 교육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 양질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향후 5년간 1만명의 청년 소프트웨어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이달 22일부터 11월 2일까지 2주간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만 29세 이하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미취업자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소프트웨어적 사고 역량을 검증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적성 진단과 학습의지와 열정을 확인하는 인터뷰를 거쳐 최종 교육 대상자를 선발한다.

삼성전자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교육기간 중에 월 100만원의 교육지원비도 제공한다. 또한, 개인 맞춤형 취업 컨설팅 서비스도 지원한다. 성적 우수자들에게는 삼성전자 해외연구소 실습 기회도 제공한다.

지방에 거주하는 취업 준비 학생들을 고려하고 지역별 삼성 관계사 교육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서울, 대전, 광주, 구미 4개 지역에서 교육을 분산 진행한다. 12월 10일부터 1년간 2학기로 교육 기간이 구성되며, 체계적인 코딩 교육과 실무 중심의 프로젝트 수행 교육도 진행된다.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는 고용노동부가 후원하고, 소프트웨어 교육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교육전문기업 멀티캠퍼스에 교육을 위탁해 운영할 계획이다.

/안병도 기자 catchrod@metroseoul.co.kr

SPC그룹 싱가포르 '쉐이크쉑' 사업권 획득… 내년 1호점 오픈

SPC그룹이 싱가포르 내 쉐이크쉑 사업운영권을 획득하고 내년 상반기에 첫 매장을 열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SPC그룹의 계열사 파리크라상과 美 쉐이크쉑 엔터프라이즈(Shake Shack Enterprise)는 지난 25일 '싱가포르 사업 운영에 관한 계약'을 맺고, 2019년 상반기 중 1호점을 열기로 했다. 1호점 위치는 2019년 새롭게 개장하는 복합 단지 '주얼 창이(Jewel Changi)'가 될 예정이다.

쉐이크쉑이 싱가포르 시장 진출의 파트너로 현지 기업이 아닌 한국의 SPC그룹을 선택한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한국에서 쉐이크쉑을 운영하고 있는 SPC그룹의 탁월한 운영성과와 뛰어난 사업역량에서 비롯됐다.

SPC그룹은 2016년 7월 서울에 한국 1호점인 '쉐이크쉑 강남점'을 선보인 이래 2년 만에 7개 매장을 열고, 강남점을 세계에서 최고 매출을 올리는 매장으로 키워냈다. 또한 쉐이크쉑의 파트너 중 유일하게 번(bun, 햄버거빵)을 직접 생산해 매장에 공급하는 등 세계적인 수준의 R&D와 품질력을 보유하고 있다.

SPC그룹은 2004년부터 프랑스, 미국, 중국, 싱가포르, 베트남 등 세계 주요 국가에 진출해 350여개의 파리바게뜨를 운영하고 있으며, 배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해외브랜드를 성공적으로 국내에 도입하는 등 뛰어난 글로벌 사업 역량을 인정받아 여러 싱가포르 현지 기업 및 글로벌 경쟁기업들을 제치고 운영권을 따낸 것이다.

한편 SPC그룹은 이번 쉐이크쉑 운영권 획득이 향후 파리바게뜨, SPC삼립 등 그룹의 글로벌 사업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인웅 기자 parkiu7854@

오늘의 운세 10월 11일 (음 9월 3일) http://www.saju4000.com

쥐 48년생 희로애락을 얼굴에 나타내지 마라. 60년생 자식이 새로운 인연을 데려오니 기쁜 날이다. 72년생 금전 문제로 속상할 일이 생긴다. 84년생 상부상조하는 것이 전체의 이익을 가져오니 협동해서 일을 처리.

소 49년생 지치기 쉬운 날이니 휴식이 필요. 61년생 과유불급이니 지나친 운동을 삼가고 과식하지 마라. 73년생 배우자가 내게는 가장 큰 조력자이다. 85년생 격한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다치게 하니 조심.

호랑이 50년생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62년생 자식이 아무리 예뻐도 가르쳐야 한다. 74년생 머리만 믿지 말고 노력을 해야 한다. 86년생 남의 허물을 들추면 내 허물도 드러나니 조심하라.

토끼 51년생 나이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야 한다. 63년생 놓친 고기를 안타까워 말고 내 것을 소중히. 75년생 깊은 밤은 새벽을 위한 준비임을 명심. 87년생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법이니 의견통일을 먼저.

용 52년생 꿈은 도망가지 않고 늘 내가 도망간다. 64년생 내가 믿음을 가져야 남도 설득시킬 수 있다. 76년생 벌을 두려워하면 좋은 꿀을 얻지 못한다. 88년생 노력한 만큼 성과도 좋으니 최선을 다하자.

뱀 53년생 작은 것에 집착하면 큰 것을 잃을 수 있다. 65년생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법. 77년생 인맥을 이용해서 좋은 일을 찾게 된다. 89년생 물건은 새것이 좋고 사람은 옛사람이 좋다.

말 54년생 도장 찍을 일이 있다면 오늘이 그날이다. 66년생 마음은 별이라도 딸 것 같으나 오늘은 자중. 78년생 1%만 존중해줘도 99%의 마음을 얻는다. 90년생 꽃피고 새가 지저귀니 때가 무르익었다.

양 55년생 고목에 꽃이 피니 좋은 일이 있겠다. 67년생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걸 잊지 마라. 79년생 두드려서 열릴 문이라면 힘껏 두드려라. 91년생 행운의 날이니 직장에서 좋은 일이 생긴다.

원숭이 56년생 밖은 한여름이나 내 마음은 동지섣달. 68년생 일취월장의 기회가 왔으니 최선을 다해 노력. 80년생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를 지켜라. 92년생 친구가 나를 모함하니 인간관계를 잘 맺어야 한다.

닭 57년생 입이 경솔하면 주변이 시끄럽다. 69년생 배우자가 옆에 있어도 느끼는 외로움은 어쩔 수 없다. 81년생 모래 위에 쌓은 성은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린다. 93년생 동서남북 어느 방향으로 떠나도 좋다.

개 58년생 상대의 단점을 지적하면 내게 해가 되어 돌아온다. 70년생 윗사람의 조언이 도움을 준다. 82년생 꽃보다 아름다운 당신이니 자신감을 가지자. 94년생 한 단계 상승할 기회가 주어지니 반드시 도전.

돼지 59년생 한발 물러서서 보면 갈 길이 보인다. 71년생 나의 약점은 가족에게도 말하면 흠이 된다. 83년생 어제의 동지가 적으로 바뀌니 영원한 것은 없다. 95년생 머리가 맑으니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 보자.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4	3	9	5	6		
				1				
9			2		4			8
2		6		7		5		4
8	4		9		2		7	6
1		7		4		2		3
5			6		7			1
				8				
		1	5	3	9	8		

					5	9		
2					8		4	7
				7		6		
	2	3		5	9			4
	1		6		7		8	
4			2	3		7	5	
		2		9				
1	9		5					2
		4	3					

스도쿠 정답

7	6	8	9	3	5	1	2	4
5	2	3	1	8	4	9	7	6
1	4	9	7	2	6	8	3	5
3	9	2	4	6	8	7	5	1
6	7	4	5	9	2	3	1	8
4	8	1	3	7	9	5	6	2
2	3	5	8	1	7	6	9	4
8	1	6	2	4	3	7	4	9
9	5	7	6	2	1	4	8	3

6	4	7	1	2	5	9	3	8
2	3	1	9	6	8	5	4	7
8	5	9	4	7	3	6	2	1
7	2	3	8	5	9	1	6	4
9	1	5	6	4	7	2	8	3
4	6	8	2	3	1	7	5	9
3	8	2	7	9	6	4	1	5
1	9	6	5	8	4	3	7	2
5	7	4	3	1	2	8	9	6

문제 제공= 보누스

부동산 대책과 조급증

기자 수첩

채 신 화 〈파이낸스&마켓부〉

9·13 부동산 대책(수요억제 정책)과 9·21 공급 대책이 나온 지 2주쯤 지나자 연락처를 남겨 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급매물 나왔는데 빨리 하셔야…."

꽤 다급한 목소리였다. 정부의 대책으로 가격이 좀 내려가지 않겠느냐고 질문하자 중개업자는 짜증을 억누르며 답했다. "매번 그랬지만 가격 안 떨어져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집값이 오르는데 한국만 안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중국인들이 죄다 사가지, 안 그래요?."

20~30대 청년들은 또 어떤가. 한 중견기업에서 연봉 5000만원 이상을 받는 20대 지인은 최근 서울에서 새 아파트를 알아보더니 "정부가 청년들의 주택 마련 사다리를 걷어차 버렸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럼에도 더 늦기 전에 집을 사야겠다며 무리해서 대출을 받아 서둘러 집을 샀다.

집이 있는 사람도 여러가지 이유로 발을 동동 굴렀다. 옆 동네만큼 내가 사는 지역의 집값이 안 올라서, 규제 때문에 이사 가려는 지역의 대출이 막혀버려서…. 당최 조급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매물이 쏙 들어가니 수수료 걱정에 급하게 집을 팔고, 무주택자들은 영영 기회를 놓칠까봐 막차 타는 심정으로 무리하게 주택을 구매한다.

정부도 초조하다. 1년 반 만에 아홉 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주택 시장이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는 모양새다. 조급하게 내놓은 정책은 오히려 상승 기대심리를 높여 집값을 끌어 올렸고, 여기저기서 질타를 받았다.

민경욱 국회의원이 정부별 초기 2년 전국 시도별 아파트 가격변동률을 분석한 결과 현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2.5% 상승해 압도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 '50%는 실패했다'고 자료를 냈다. 그렇다면 나머지 50%는 성공했나. 이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비판해 향후 개선점을 찾아야 할 국감이 열렸다.

그러나 국감 첫날(10일)부터 정치적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과 야당은 각종 자료를 쏟아내며 정책을 비판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깎아내렸다. 주택 시장, 나아가 모든 세대들의 내집 마련 조급증을 가라앉히기 위해선 진정성 있는 대책 마련이 논의돼야 할 때다.

/csh9101@metroseoul.co.kr

김상회의 四季

재물이 화가 될 수도

옛 선인 중에는 금덩어리 보기를 돌덩어리 보듯 하라고 말한 사람도 있지만 일반대중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 실제로 그런 마음을 유지하며 살 수 있다면 재물로 인한 큰 화를 만나지 않을 것이다. 다들 재물을 원하지만 재물이 자꾸 들어오면 위험해지는 경우도 있다. 재다신약 사주인 경우에 그런 일이 종종 생긴다. 재다신약은 재물은 많이 들어오는데 스스로가 감당하지 못해 오히려 화가 되는 사주이다. 사주 명식에서 재(財)가 힘이 강한 구성인데 많은 재성에 비해 일주가 허약하다. 이런 사주를 지니면 재물이 생기는 게 무조건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다. 재물을 다룰 능력은 간장 종지만 한데 가마솥만큼의 재물이 몰려오니 화가 되는 것이다. 재다신약 일 때 재물이 부르는 화를 피하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재물을 다른 사람의 것으로 만들어 버리면 된다. 단체에 기부를 하거나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 지인에게 빌려주면 된다. 재물을 자기의 손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이다. 재물을 이곳저곳에 흩어놓으면 화의 기운도 약해진다. 당장 그 돈이 아까울지 모르지만 결코 그렇지는 않다. 나중에 모두 이자를 쳐서 더 큰 복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옛날 동화에 항아리 속에 돈을 묻어놓고 매일 들여다보는 부자 이야기가 있다. 도둑이 돈을 훔쳐가고 대신 낙엽을 넣어놓자 부자는 슬피 운다. 이를 본 사람이 말한다. "어차피 쓰지도 않는 돈, 항아리 속에 돈이 있으나 낙엽이 있으나 뭐가 다른가. 낙엽을 돈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비꼬는 말이지만 사실 맞는 말이다. 돈을 쌓아놓고 쓰지 않으면 돈이 없는 것과 다를 게 별로 없다. 그런 사람은 재물운이 있다고 말하기 힘들다. 재다신약 사주인데 생각지 않은 재물이 생긴다면 무조건 좋아할 일이 아니다. 일단 문제없는 재물인지 살펴보는 게 우선이고 문제는 없지만 너무 많은 재물이라면 모두 가지려 말고 주변에 베풀어야 한다. 그래야 갑자기 몰려온 재물과 함께 쏟아지는 화를 피할 수 있다. 먼저 자기의 사주에 맞춰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 행·편집인 편집국장	이 장 규
인 쇄 인	중앙일보(주) 김교준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055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159호